

홍익표 "윤, 채상병 수사방해 확인되면 퇴임 후라도 형사책임 불가피"

등록 2023.10.13 10:17:48 | 수정 2023.10.13 11:32:04



[서울=뉴스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3. bjk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여당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건 당연한 국가 의무"라며 "수사과정에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 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군부의 철권통치도 진실을 숨기려는 범죄에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의당, 무소속 함께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른 시일 내 통과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aga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